
2013 수시모집 논술고사 출제의도

□ 인문계열

1. 출제 의도

1) 논제 제시 및 입론 능력 평가

논쟁적인 주장이 담긴 글을 읽고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의 논거들을 활용하여 논제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2) 제시문 독해 및 분석 능력 평가

각 분야의 고전이나 이에 견줄 만한 정평 있는 저술들에 소개된 문장, 도표 등에 대한 독해 능력과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3) 제시문을 활용한 논거 제시 능력 평가

지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특히 각 지문의 견해나 관점을 수용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지문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4) 조건에 맞는 서술 능력 평가

각 문항이 요구하는 내용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표현의 정확성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한다.

2. 각 지문의 출처와 내용소개

○ A형

1) [가] 제시문

제시문 [가]는 해킹(Ian Hacking)의『표상하기와 개입하기』와 크립키(Saul Kripke)의『이름과 필연』중 일부를 발췌하여 편집한 것이다. 제시문 [가]는 '호랑이'의 사전적 정의에 나타난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호랑이가 아닌 동물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호랑이'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랑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식별하는지를 반영한다고 할 때, [가]는 정의와 정의의 대상 간의 필연성을 부인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나] 제시문

제시문 [나]는 Zoltán Kövecses의 『언어·마음·문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기존의 색채 연구에서 색채어가 세계를 자의적으로 분할하고 색채어의 사용 경계가 언어마다 다르다고 주장해 왔던 것을 반박하고 있다. 그 근거로 색채어의 경계는 언어마다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경계 내의 색채 가운데 전형적인 색(초점 색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언어에서 보편성을 띠고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기본 색채어가 모든 언어에 보편적인 순서대로 발생하고 있음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3) [다] 제시문

제시문 [다]는 홍두승의 『사회조사분석』에서 발췌하였다. 실증주의적 과학관에서 사회현상에 대한 접근은 이론적 명제와 경험적 관찰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의 이론을 통해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 즉 작업가설로 전환시킨다. 작업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측정도구를 만들고 표본을 추출하여 이를 관찰하게 된다. 개별적으로 관찰된 현상은 통계적으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서 관찰된 자료들이 앞서 설정한 가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이론을 받아들이거나 수정 또는 거부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인 경향이나 추세를 파악하기도 하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서 인과적인 모형을 구성하기도 한다.

4) [라] 제시문

제시문 [라]는 『장자(莊子)』의 <제물론(齊物論)>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사물을 분별하여 인식하면 도에서 멀어질 뿐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장자는 도를 대면하려면 “오직 따를 뿐 그것의 그러함을 의식하지 못”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분별하여 바라봄으로써 이로부터 필연적으로 파생된 온갖 진위와 시비 등의 인위적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장자는 “도가 어찌 가려져 참과 거짓이 있게 되며 말이 어찌 가려져 옳음과 그름이 있게 되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도가 어찌 어디로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말이 어찌 고정되어 불가함이 있겠는가. 그러나 도는 조그만 성취 [小成]에 가려지며 말은 화려한 수식에 가려져 유가와 묵가의 시비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논단하였다. 세상을 인간의 분별지로 바라볼 때, 그 세상은 자신의 시선에 따라 재단된 세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오직 도에 통달한 자라야 통하여 하나로 됨을 알아서 지혜의 분별을 버”려야 하며, “이러한 분별에 근거하지 않고 하늘의 섭리에 비취”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5) [마] 제시문

<표 1>과 <표 2>는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의 발생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신체적 폭력은 대략 4.0%-13.8%의 청소년들이 지난 1년 사이 경험하였으며 정서적 폭력은 대충

18.6%-37.2%의 10대들이 지난 1년 동안 겪어야 했었다. 즉 신체적 폭력보다 정서적 폭력이 훨씬 더 빈도가 높은 편이다.

<표 3>과 <표 4>는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있다. 특히 두 가지 폭력이 자아개념과 비행행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표 3>을 보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신을 더 쓸모없으며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신을 더 실패한 사람이며 더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즉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의 경험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킨다. <표 4>를 보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음주나 흡연을 더 많이 한다. 그리고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결석이나 흡연을 더 많이 한다.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의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비행행위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한다.

○ B형

1) [가] 제시문

[가] 제시문은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제3장 중 일부이다. [가] 제시문은 문명이 발전하게 되면 인간들 간의 사회적 결합이 견고해져, 동정심이 확산되고, 도덕적인 감정이 자라나게 되며, 강력한 외부적 제재에 힘입어 집단협력이 광범위하고 긴밀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그 결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초래하는 요소들이 제거되고, 대다수 사람들의 행복을 무시하는 법적 불평등이 극복되어 정치적 진보로 향해 가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제시문 [가]는 사회 발전을 위한 개인에 대한 규제가 정당하다고 본다.

2) [나] 제시문

[나] 제시문은 『목자』제46「경주편(耕柱篇)」중 일부이다. [나] 제시문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로부터 확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체의 복리를 앞세워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입장을 비판하는 무마자의 견해를 목자가 반박하는 내용이다. 목자는 만약 사람들이 무마자의 견해를 수용할 경우, 사회구성원들은 상호간에 반목하게 될 것이며, 반대할 경우 무마자는 이들에게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무마자 견해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통하여 목자는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에게도 이롭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 [다] 제시문

[다] 제시문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4편 2장의 일부이다. [다] 제시문은 각 개인은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의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고, 이 경우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4) [라] 제시문

[라] 제시문은 19세기 미국의 문인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가 쓴 「시민정부에 대한 불복종」(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이라는 글의 일부이다. [라]는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된다. 즉, 인간 개개인은 그 자체로 고귀함을 지닌 목적적 존재이므로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를 위한 도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법에 대한 지나친 존경심에 대해 비판하며, 인간 개개인이 법보다 상위에 놓여 있는 ‘올바름’에 대한 각자의 자유롭고 양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행동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5) [마] 제시문

<그림 1>은 계절성 신상품에 대한 가상 매출액 그래프이다. <그림 1>을 통해 상품 판매량이 여름에 특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2009년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0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2011년에 정체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11년 노인실태 조사(보건복지부 출간)」를 참조한 것이다. <표 1>에서는 1) 여성의 성비가 높은 사실, 2)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실, 3) 기혼임에도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은 사실, 4) 취업자 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통해 이 상품의 주 고객이 노인층임을 도출할 수 있다.

3. 문항설명

○ A형

1) 문항 1

이 문항은 제시된 지문의 요약 능력, 제시된 지문들의 견해나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문항에서는 우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주된 견해나 관점을 중심으로 적절한 분량으로 요약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시문 [가]와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들을 모두 선택하여 [가]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문항 2

이 문항은 도표를 이해하고 이를 내용에 맞게 기술하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문항 3

본 문항은 상기 주장이 담고 있는 쟁점을 파악하여, 이를 제시문의 논거들을 활용하여 논제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B형

1) <문항 1>

이 문항은 제시된 지문의 요약 능력, 제시된 지문들의 견해나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문항에서는 우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주된 견해나 관점을 중심으로 적절한 분량으로 요약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시문 [가]와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들을 모두 선택하여 [가]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문항 2>

이 문항은 도표를 이해하고 이를 내용에 맞게 기술하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문항 3>

본 문항은 현실에서 논의되고 있는 찬반논의에 전제되어 있는 입각점을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의 논거들을 활용하여 논제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논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자연계열

○ A형 출제의도

1. 문제 1

- 1) 좌표평면에 대한 이해도
- 2) 함수의 성질에 대한 이해도
- 3) 미분에 대한 이해도

2. 문제 2

- 1) 도형의 이해
- 2) 삼각함수의 응용 능력
- 3) 적분의 응용 능력

3. 문제 3

- 1) 주어진 사건들의 곱사건 및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해도
- 2) 점화식의 응용능력
- 3) 조합에 대한 이해도 및 응용능력

○ B형 출제의도

1. 문제 1

- 1) 약수와 배수에 대한 직관적 통찰력
- 2) 약수와 배수에 대한 적용 및 문제해결능력
- 3) 이항정리에 대한 적용 및 문제해결능력

2. 문제 2

- 1) 수열 및 연산에 대한 이해도

3. 문제 3

- 1) 도형의 이해
- 2) 삼각함수의 응용
- 3) 적분을 이용한 회전체의 부피
- 4) 합성함수의 미분법 및 응용